

금호산업, 5월 3000억원 증자

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로 ... 대유에이텍도 306억원 유상증자

5월 납입 예정인 유상증자는 금호산업, 에이엔피, 대유에이텍 등 3사 33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4월16일 발표했다.

금호산업과 에이엔피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을, 대유에이텍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각각 증자한다.

증자금액은 금호산업 3000억원, 대유에이텍 306억원, 에이엔피 81억원이다.

상장협의회는 6월 납입 예정액은 4월13일 현재 동부씨엔아이, 파미셀, 케이아이씨 3사가 109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6>